

오순절 후 스물네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24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11월 1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통일 17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6 번 (시편 104 편)	다같이
*고백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로마서(Romans) 8:18-27</b>	박은정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은혜라”	찬양대
설 교 Sermon	<b>“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Song	“은혜 아니면”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196 장 “성령의 은사를” (통일 17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말세에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식어져 가는 사랑을 전혀 안타까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해졌고,

여전히 염려와 불안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사람들 가운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24:1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개역개정 롬 8:26)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NIV Romans 8:2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12 (주일)	11/13 (월)	11/14 (화)	11/15 (수)	11/16 (목)	11/17 (금)	11/18 (토)
	왕하25	대상1,2	대상3,4	대상5,6	대상7,8	대상9,10	대상11,12
본문	히7	히8	히9	히10	히11	히12	히13
	암1	암2	암3	암4	암5	암6	암7
	시145	시146,147	시148	시149,150	눅1:1-38	눅1:39-80	눅2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1/15수오후730)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벧전2:9-17)
토요 새벽기도회 (11/18토오전630)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시119:137-144)

지난 주일(11/5) 말씀 – 류상수 목사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 (시 136:1-9)

시편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이며,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로 요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시편 14 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시 14:1)고 하거나, 사도 바울은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롬 1:21)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된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1)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고, 또한 2)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시편 136 편(시 136:1-26)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또한 감사도 잊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말씀은 다름 아닌 “Remember Me (Remember God)” 즉,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조율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상을 믿음 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